

# 모의훈련이 실제 전투의 승패를 좌우한다

미국은 9·11 테러를 자행한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 약 10년 동안 천문학적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마침내 그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리고 임무를 맡은 미 해군 특수작전 대원들은 실제 은신처와 동일한 크기의 모의 훈련장을 만들어 그곳에서 무려 3주간 똑같은 훈련을 반복했다. 그 결과,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이 났다. 이렇듯, 특수작전에서 모의훈련은 작전 성공을 위한 필수 항목이다.

나는 팀에서 몇 년간 한미 연합훈련 경험을 통해 얻은 모의훈련의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연합훈련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국군과 함께 언어적 장벽과 서로 다른 전술을 극복하면서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도전적인 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계획과 넉넉한 준비기간 그리고 매 훈련 전 모의훈련이 핵심 열쇠다.

첫 번째 연합훈련 동안 한미 연합팀은 최상의 팀워크를 끌어내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매 종합전술훈련 전에는 반드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조직력을 끌어올린 연합팀은 전투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우발상황과 언어장벽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팀이 사전에 계획했던 것 이상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모의훈련을



**박세찬** 중사  
해군특수전전단 1특전대대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우발상황을 연합팀원 모두가 공유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연합훈련을 지표 삼아 두 번째 연합훈련의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했다. 하지만 첫 번째 연합훈련과 달리 잘못된 계획 변경으로 인해 모의훈련 단계를 건너뛰고 종합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연합팀 훈련에 그대로 반영됐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우리를 덮쳤고, 이전과 달리 모두가 각기 다른 생각으로 일관해 팀은 혼돈에 빠졌다. 만족스럽지 않게 훈련이 끝났고, 강평에서 한미 연합팀은 모의훈련 부재가 성공적이지 못한 훈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모의훈련이 작전 준비에 주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팀원들 모두가 작전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모의훈련은 단순히 개

인의 임무를 숙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전력의 임무를 이해해 상충하는 부분을 미리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우발상황에 관한 의견교류가 이뤄지고 이는 전투 중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이 외에도 작전지역의 환경요인이나 그에 따른 인적요류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코치 존 우든은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 했다. 성공적인 작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을 열기 전에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절대 모르는 법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문을 연 다음 생기는 우발요소들을 모두 답할 수는 없다. 이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의훈련이다. 모의훈련은 전투 중 우군과의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 군이 완벽한 계획과 모의훈련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투 상황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기대한다.

# 브레이브 보이즈

<Brave Boys>



**최시훈** 상사(진)  
육군6사단 초산여단  
개천돌진대대

‘브레이브 걸스’의 역주행이 장안의 화제다. 연수로는 5년, 입수로는 1854일 만에 음악방송 1등 트로피를 받은 그들의 얼굴엔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다. 멤버 모두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성도 뛰어나 ‘왜 이제야 이 그룹이 알려졌지?’ 하는 물음이 곳곳에서 나왔다.

오늘날의 성과는 그들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했기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다. 그러나 만약 도중에 지쳐 포기했다면 지금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을 믿는 일. 브레이브 걸스가 보여준 열정에 완전경계 작전 6주년의 쾌거를 이룬 우리 개천돌진대대원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개천돌진대대는 2015년 4월 23일 GOP절책을 전담하며 최전방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전담대대와 함께 도입된 광망, TOD, 중·근거리 카메라 등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막강한 군사대비태세와 더불어 우리 군의 저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는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브레이브 보이즈’로서  
철통 같은 경계작전을 펼칠 것이다

과학화경계시스템 도입은 초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철저히 전방을 주시하는 토대가 됐다.

물론 좋은 장비가 있다고 만사형통인 것은 아니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능력과 자세도 중요하다. 기계를 조작하고 획득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다.

각 소초, 중대(OP)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임무를 수행하는 영상감시병들은 적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 놓치지 않으며 적의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한다. 또한 수차례의 상황조지훈련과 차단작전훈련, 영상감시 최적화를 위한 전투실현 등 끊임없는 시스템 개선으로 공세적인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브레이브 걸스의 역주행은 그들의 인내와 짙은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 개천돌진대대의 완전경계작전 6주년을 선배 전우와 현 장병들이 흘린 땀과 눈물로 이뤄낸 성과다.

누군가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6주년을 주어진 임무에 성실하며 부대가 하나의 비전과 목표로 임무를 수행한 결과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브레이브 보이즈(Brave Boys)’로서 어제와 다른 오늘, 이전과 다른 지금이라는 신념을 지키며 철통 같은 경계작전을 펼칠 것이다.

# 대한민국 육군, 새로운 미래를 향한 활주로

2020년 3월 16일. 긴장되는 마음으로 육군훈련소에 발을 들였다. 나는 브라질 영주권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자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남들보다 1년6개월 뒤쳐진다는 불안감과 한국 문화 적응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낸다면 육체적·정신적으로 한층 성장한다고 믿었기에 망설임 없이 군복을 입었다.

지금은 군 생활을 인생에서 멈춰있는 시간이 아닌, 나를 한층 발전시킬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땅벌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지향적 자기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여단에서는 전입 이후 생산적인 군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인생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만다라트’와 군 생활 계획인 ‘실천계획서’를 작성하고, 일일 단위로 피드백하기 위해 ‘실천노트’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군 생활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다. 나는 목표를 크게 네 가지로 설정했다. 특급전사 달성, 스페



**우은표** 병장  
육군66사단 땅벌여단

인어 자격증 취득, 토익 900점 이상 달성, 오픽 IH 등급 달성이 그것이다.

이 중 가장 먼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특급전사다. 포상휴가뿐만 아니라 선임들의 특급전사 패치가 부러웠고, 나를 육체적·정신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시간 더 운동했고 야간 연등시간을 활용해 병기분과목들을 공부했다. 그 결과 전입 후 4개월 만에 특급전사 달성이라는 쾌거와 함께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두 번째 목표였던 스페인어 자격증은 단기간 취득을 목표로 3개월간 집중

적으로 개인정비시간과 연등시간을 활용해 DELE C1(고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두 가지 목표는 빨리 달성할 수 있었으나 영어는 개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여단 내에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영어동아리 가입을 통해 영어실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었다. 덕분에 6개월 만에 토익 965점이라는 믿기 어려운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국방TV의 ‘청년 Dream 국군드림’ 방송에 출연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마지막 목표인 오픽은 영어동아리를 통해 남은 5개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할 예정이다.

혹자는 군 생활을 ‘버틴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한다면 군 생활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미래를 향한 활주구가 되어 나를 더욱 높게 날게 만들어 주리라 확신한다.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을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준 육군과 부대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비상을 할 것을 다짐한다.

##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카툰, 사진, 그림, 캘리그라피  
 △분량·크기: 자유 (산문·시·독후감·편지는 공백 포함 1600자 이내)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군인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양식 이용해 이메일(장병은 부대 정훈계통 문의)로 제출  
 △기타: ‘병영의 창’ 면 게재자에게는 매월 말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치킨 세트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letter@mnd.mil  
 △문의: 군) 947-3732(육군), 3736(해군·해병대), 3742(공군), 일반전화) 02-2079-3718

